

# 여행기는 마음이 이끈 곳에서 몸이 느낀 자유로움의 흔적



왼쪽부터 이좌연, 정신철, 이영근, 김유정, 홍은 씨.

이좌연(37), 정신철(29), 홍은(29), 김유정(28) 세들은 여행정보 사이트 티볼 www.tbboom.com에서 발간예정인 여행산문의 객원기자로 활동할 아마추어 여행가들이다. 물론 이들이 쓰고 싶어하는 글은 기존의 여행기와는 다르다. '공식' 여행작가들보다 세련되지 않겠지만 아마추어의 장점을 살려 현장에서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이들의 지향점이다. 뻘한 여행지가 아니라 새로운 여행지를 개척하는 것도 이들이 꿈꾸는 일이다. 서울 건국대학교 후문에 있는 여행 카페 프렌즈에서 이들을 만나 여행과 여행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홍은(주)디지털캐스트에서 편성팀 PD로 일한 지 3개월 됐습니다. 그 전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틈틈이 섬을 많이 다녔어요. 다음daum카페에 나름대로 여행 칼럼을 썼었는데 이는 사람끼리 둘러보는 글과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글은 많이 다른 것 같더군요. 일때문에 여행을 멀리하는 것도 경계하고 또 좀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티볼 여행기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sup>김유정</sup>전 프리랜서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호주 시드니에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그때 알았어요.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걸요. 다행히 영어강사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또 수업도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편이 아니어서 여행을 떠날 때 큰 구애는 받지 않아요.

정신철 씨는 YBM 시사주니어 교육기획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좌연 씨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 사진을 전공한 탓에 장씨는 일찍부터 여행을 다닐 수 있었다. 직장에 몸이 메인 지금도 직장동료들의 꿈지만은 않은 부러움을 감수하고 '무턱대고' 여행을 다닌다. 군대에서 헬기조종을 한 이씨는 (조금 과장하자면 하늘에서 본 곳은 모두 걸어봤을 정도로 여행 베테랑이다. 결혼 전까지 해마다 100일은 길 위에서 보냈을 정도로 여행에 푹 빠져 살았다.

—<sup>김유정</sup>여행산문집은 아니지만 《세계를 가다》라는 책에 애정이 갑니다. 지금도 간혹 참고하는데 책이 좋아서라기보다 책을 읽고 막상 가보면 책이 나온 이후 달라진 게

너무 많잖아요. 앞으로 여행을 하다 책하고 다른 점이 발견되면 출판사에 편지를 보낼 생각이예요.

—<sup>이좌연</sup> 틀린 정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여행지가 뻔하다는 겁니다.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여행을 보세요. 새로운 게 없습니다. 글도 다녀와서 쓴 게 아니라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 나오는 얘기들인 경우도 많죠. 왜 이러이러한 곳은 소개되지 않느냐고 아는 여행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의외로 쉽게 대답 하더군요. 그런 곳은 항공사에서 협찬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sup>정신철</sup> 《세계를 가다》가 많이 팔릴 땐 여행정보도 그렇지만 여행 자체에 대한 경 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정보는 인터넷에 다 있죠. 여행책이 눈에 익은 독자들은 그 정보의 가치에 대해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갈수록 남 다른 감수성이나 현지 사람들의 삶이 담긴 보다 고급한 정보를 원하는 건 당연 합니다.

—<sup>홍은</sup> 그런 것 같아요. 저 역시 최근엔 소설가나 시인들이 쓴 여행산문집을 많이 읽게 됩니다. 여행 때문이라기보다 작가를 때문이었지만요. 하지만 분명히 이 들 책에는 다른 여행서보다 여행을 자극하는 게 있어요. 제가 다녀본 여행지 에 대한 남다른 관찰을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구요.

—<sup>김유정</sup> 인터넷에 있는 정보도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스킨스 쿠버 다이빙을 하기 위해 최근에 사이판에 1개월간 다녀왔어요. 그때 참고한 게 아쿠아www.aq.co.kr라는 사이트인데 아마 국내에서는 유일한 유료여행 사이트일 거예요. 정말로 1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사이트의 도움을 많이 받았 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고급한 여행정보도 인터넷에서 얻게 될 거예요. 책은 변화를 못 따라가니까요.

—<sup>이좌연</sup> 전 최근에 나오는 여행산문집이 부담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여행을 할 때 무엇인가를 배우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단지 여행 그 자체를 즐 기는 데 있죠.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수도원 기행, 박물관 기행 등과 같은 책은 여행을 하면서 자꾸 무엇인가를 배우오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요. 모티브를 잡

아서 여행을 썼다는 점에서 긍정하지만 여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여행지에 대한 산문집은 없어요.

—<sup>정신철</sup> 작가나 여행전문가도 그렇지만 요즘에 비전문가들도 여행책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미애와 루이 318일간의 버스여행》이 그런 경우죠. 정말 다 버리고 일상 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찾아 떠나는 모습도 보기 좋잖아요. 사실 전 지금도 거의 매일 그런 일탈을 꿈꿉니다. (웃음)

—<sup>홍은</sup> 간혹 아무나 여행책을 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여행을 즐기는 사람의 저변이 넓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저희들처럼요.

—<sup>이좌연</sup> 예전엔 여행은 99퍼센트가 방학이나 여름휴가에만 갔어요. 주말에 가는 건 등 산이나 낚시 정도였지 여행은 아니었죠. 하지만 요즘은 꼭 시즌이 아니더라도 여행 을 가요. 체험여행이니 하는 식으로 여행문화 자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sup>김유정</sup> 전 보통 5만 원, 10만 원 부담이 적은 적금을 많이 들어요. 그러다보면 만기가 한꺼번에 두 번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럼 목돈이 되고 떠날 준비가 된 거죠.

—<sup>정신철</sup>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여행을 못가죠. 관광이면 모를까. 여행은 여 유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sup>홍은</sup> 솔직히 취업을 하고 나서는 여행을 한 번도 다니지 못했어요. 유정 씨처럼 프리랜 서로 일할 땐 홀가분했는데 이젠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죠. 하지만 이렇 게 모이니까 또 언젠지 떠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말처럼 여행을 즐긴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아니다. 여행을 다 녀온 후 이들의 은행잔고는 0에 가깝다. 이들은 단지 남보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쓰고 싶어 하는 여행기는 마음이 이른 곳에서 느낀 자유 로움의 흔적이다.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 중의 하나를 놓고 사는 셈이다. **☞**



취재 신동섭  
사친 박진우 기자